

한의학과 함께하는 건강한 임신·출산

2024년 한의난임사업 기고집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진흥원



CONTENTS | 목차

- 01 **[서울]** 한의학을 통한 난임 극복: 난임지원사업 덕분에 찾은 행복 4
- 02 **[서울 강남]** 반복된 시험관 시술의 실패와 습관성유산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성공시킨 한의학난임사업 🏆 6
- 03 **[서울 강서]** 아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8
- 04 **[서울 은평]** 4년 만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10
- 05 **[부산]** 희망의 씨앗을 틔운 한의난임사업, 한 달의 기적 12
- 06 **[인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14
- 07 **[인천]** 희망을 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이 만든 생명의 기적 16
- 08 **[인천]** 첫째 시험관 출산 후 둘째 시험관 실패로 찾아온 AMH* 0.6 여성의 자연임신과 유산방지 한약(* AMH : Anti Mullerian Hormone, 항물려관호르몬) 18
- 09 **[광주]** 자식을 얻는 일은 사람 사는 길의 시작이다. 20
- 10 **[울산]** 단절된 희망을 잇다 - 유산의 상처를 보듬은 한의난임치료 23
- 11 **[울산]** 첫째 조산한 난임 산모의 한의 난임 치료 후 둘째 출산 사례 25
- 12 **[울산]** 낮은 AMH에도 다시 피어난 생명 : 한의난임사업이 만들어낸 기적 27
- 13 **[경기]** 희망을 품게 해준 한의사회 난임 지원사업 30



- 14 **[경기]** 3년 난임 극복! 3개월 난임한약지원사업이 준 기적 31
- 15 **[경기]** 포도송이 난포에서 피어난 기적 🏆 33
- 16 **[경기]** 한의약 난임사업이 확대되길 바라며... 35
- 17 **[경기]** 포도가 아기별에서 엄마·아빠 품으로 36
- 18 **[경기 화성특례시]** 난임지원사업과 난임진료 10년의 이야기,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기억합니다. 38
- 19 **[경기 화성특례시]** 화성시 난임 사업을 함께해 온 화성시한의사회 40
- 20 **[경기 화성특례시]** 시작은 회복이었고, 끝은 탄생이었다. :
자연임신과 출산을 이끈 한의약 난임 치료의 여정 42
- 21 **[전북 김제]** 김제시 한방난임치료사업 운영 경험 공유 44
- 22 **[전북 익산]** 따뜻한 손길이 만든 기적 :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만난 새로운 삶 ... 45
- 23 **[전북 익산]** 기다림의 시간, 한의약과 함께한 희망의 여정 46
- 24 **[전남]** 현장에서 마주한 변화,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가능성 48
- 25 **[전남]** 소중한 생명의 씨앗, 한방에서 찾은 희망원 🏆 50

한의학을 통한 난임 극복: 난임지원사업 덕분에 찾은 행복

[서울특별시] 허 현 대상자



저희 부부는 평소 식단과 운동을 관리하며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예상보다 쉽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난임전문병원에서 시험관 기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도 양방병원에서 난임 관련한 진료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검사상 둘 다 크게 이상은 없었기에 배란유도제를 사용하여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란유도제를 복용하며 임신 시도를 했으나 계속 실패하였고,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저의 컨디션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우울감도 많아져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5번의 배란 유도 실패 이후, 병원에서는 배란유도제를 이용하여 자연임신을 시도하기보다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기술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난임전문병원 방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남편은 시험관 기술을 고민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울시의 난임 한의약 지원사업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털 검색을 통해 난임한약으로 유명한 여성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난임 한의약 사업에 해당되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었지만, 당장의 임신만을 목적에 두는 양방병원과 달리, 부부의 몸 상태를 개선하려는 한약 치료 방향성에 공감하여 한약 및 약침을 통한 임신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임 사업지원이 되는 많은 한의원 중에 집과 더 가까운 OO한의원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저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동반으로 난임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한방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2주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여 몸 상태에 따라 맞춤으로 한약을 조제 해주셨습니다. 치료 중간에 소화가 안 되어 말씀드렸을 때도 임신을 준비하는 저에게 가장 해가 되지 않고 도움 되는 약으로 신중히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침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와 남편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침 기술도 받았습니다. 매주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병원의 직원분들도 항상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진료를 올 때마다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부부는 임신이나 한약에 방해될 수 있는 음식은 꼭 가려서 먹었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며 체중조절에도 신경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매일 밤 거르지 않고 배에 쑥뜸을 뜨면서 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했고 찬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매달 양방병원에서 처방받았던 배란유도제를 끊고 나니 자연스레 부작용이 사라지면서 몸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이전보다 피로감이 줄었고 온몸의 순환이 예전처럼 되돌아 온 느낌이었습니다.

한의원을 다닌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테스트기에 희미하게 두 줄이 뜬 것을 보고서도 괜히 들떴다가 실망하지 말자고 하며 기쁨을 표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검사를 해본 뒤 임신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한의원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의원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험관 시술을 고민했던 저희 부부였지만, 한의학을 통한 체질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에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서울시 난임 한의약 지원사업 덕분에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었고, 맞춤형 한약 치료 덕분에 몸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현재는 2주차 임신부로 건강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을 도움을 받고도 임신이 안 되면 정말 시험관을 해야 하나, 그동안에 우리 부부가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아이가 찾아와 주어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변의 지인들이 임신준비를 한다고 하거나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서울시 난임 한의약 지원사업을 얘기해주면서 한방치료를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어서 임신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며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통해 서울시 난임 한의약 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이 기회를 통해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시험관 시술의 실패와 습관성 유산으로 부터 임신과 출산을 성공시킨 한의학난임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효선 한의사

000님을 만난 것은 2020년 8월 7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약 난임사업으로 온 것이 아닌 유산 후 조리약을 위해 내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000님은 이미 수차례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을 거친 뒤였고 반복된 화학적 유산과 계류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000님은 2017년 12월 결혼 당시에는 자신이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2년간 피임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임신을 계획하고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임신이 빨리 되지 않자 급한 마음에 난임병원에서 난임시술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배란유도제를 시작으로 인공수정 2회에 모두 화학적 유산을 하였고, 그 이후 시험관아기 시술을 2회 시도하던 중 2회차에 임신을 하였지만 7주 경에 또다시 계류유산이 되면서 임신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혈전요인과 면역요인에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 두 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 때는 습관성유산 진단하에 크록산 주사와 면역글로블린 주사, 아스피린을 처방해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임신도 힘들지만 습관성 유산이라는 진단은 유산이 또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좌절감을 주었고 영영 출산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유산 후에 한약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유로 한의원을 방문한 000님은 상담을 받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당시는 규정상 양방과 한방이 동시에 지원이 안 되기도 했고 마음이 급하니 사실 한방치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반복된 시술과 유산으로 깊은 실망감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000님은 한의원에서의 상담을 받고 신뢰가 생겨서, 희망이라는 한 줄기 기대를 느끼며 한방 난임 치료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신의 주체는 여성이지만,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데는, 남성의 몸, 정자의 상태도 물론 중요하니, 이번에는 배우자와 함께 한약과 침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고, 부부가 맘을 모아 함께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의약 난임사업을 시작했지만 소과술을 시행한 지 사실 1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임신을 위한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먼저 유산 후 몸을 회복시키는 약을 2차까지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처방부터는 건강한 임신을 위한 약을 처방하였는데 한약을 복용하면서 2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생리통이 줄어서 늘 달고 살던 진통제의 수가 줄어서 신기해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환자는 약침과 침 치료를 병행하며 편안하게 임신 준비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27일, 5번째 처방을 한 후 1월 5일, 자연임신으로 임신 확인을 했다는 소식을 한의원으로 알려왔습니다. 놀랍고 기쁘기도 하지만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반복된 유산 경험이 많았던 000님은 걱정과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자연임신이고 그동안 한약을 복용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진 확신이 들어서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 후 아스피린만 복용하고 나머지 습관성 유산 방지를 위한 주사치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의원에서 안전한 착상과 유산방지를 위해 안태(安胎)약을 바로 복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신 6-7주차에 아기집 주변으로 피가 고이는 위기가 또다시 찾아 왔지만 000님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태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아기집 주변에 피고임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도 확인하면서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해 6월 28일 안전하게 해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졸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과 불안이 들었던 날들을 생각하니 안도감과 기쁨,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후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약도 요청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지어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장을 믿고 한의학 치료를 신뢰한 환자에게도 감사하며 새생명의 탄생이라는 더없이 값진 기회를 제공한 한의약난임사업에도 고맙습니다. 여성, 남성-부부에게 치료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한의학 난임사업의 장점이 더욱 발휘가 된 경우였고, 아기 아버지께서 손편지와 직접 그린 그림도 보내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양한방 동시지원이 가능으로 규정이 개선되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되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임신 확인 이후 한약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약 처방을 필요에 따라 늘릴 수 있는 전 주기적인 치료로 한의학 난임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회구조적 변화로 고령임신이 늘어나고 고위험산모도 늘면서 임신을 위한 치료는 좀 더 정밀해져야 하고 다학제적이며 광범위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다학제적으로 양한방 동시지원 가능이라는, 규제 제한을 넘어서 양방과 한방이 적극적인 협진시 인센티브와 같은 좀 더 과감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면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부터 안태(安胎)를 넘어 출산 이후까지 여성의 몸을 돌보는 전주기적인 관점으로 난임사업의 개념이 넓어진다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더불어 건강한 여성과 가정이 되는데 국가의 난임사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병삼 한의사



저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첫해부터 올해로 7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강서구는 2018년 12월 서울시 25개구 중 최초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하여 벌써 20명 이상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임신되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사연이 있고, 하나하나가 소중한 사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사업 첫해인 2019년 4월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치료 2개월 만에 자연임신하여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부인은 81년생, 남편은 80년생으로 사업 참여시에 만 38세, 40세였습니다. 2010년 11월, 결혼 3년차에 부인이 임신을 위하여 여러 검진을 받던 중 갑상선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피곤하면 목이 잠기곤 하였고 아직 폐경기가 아닌데도 안면홍조가 심해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이 달아오르며 숨이 찼습니다. 애액이 부족하여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웠고,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몸도 마음도 힘이 들어 아예 잠자리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신을 하려고 시험관 시술을 다섯 번이나 받았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절박한 심정으로 2018년 3월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세간에 암이 있거나, 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말들에 신경이 쓰여 한의원에 내원하는 것도 많이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3개월간 침, 뜸, 한약의 치료와 운동, 식사요법, 수면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을 하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어 자연임신 시도를 권유했으나 부부관계가 잘되지 않아 추가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다섯 번이나 체외수정을 하였음에도 착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셋이나 임신을 하여 하나는 선택적으로 유산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14주 차에, 뱃속에 남은 쌍둥이마저 자연유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임신이 상당히 진행된 후의 유산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걸레나 행주를 짤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유산 후의 조리를 위하여 2개월 한약을 먹고 나서 2019년 3월에 인공수정도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때 마침 OO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제가 참여를 권유했었고 부부가 함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인은 학창시절부터 월경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매번 먹었는데 한의원에서 왕뜸시술을 받으면서부터 많이 호전되었고, 20대까지는 냉대하도 많아 질염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복부의 냉증이 심해 실내에서 운동을 해도 배가 차고, 잘 때는 배는 이불을 꼭 덮어야 하며, 물을 적게 마시고, 더운 음식이 좋고, 설사가 잦아 심할 때는 하루에 4번이나 대변을 보며 특히 밀가루, 커피, 냉면, 돼지고기는 탈이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콧물 코막힘 등의 비염 증상도 있고, 턱밑에 여드름도 심합니다.

남편은 신혼 때 발생한 부인의 갑상선암 치료 때부터 몇 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부인의 안면홍조와 애액부족으로 인한 성교곤란증으로 본인 또한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여 성욕과 성감이 떨어져 있고 자신감도 부족하여 질내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연임신은 요원하였고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개월의 치료를 통하여 부인의 월경통, 냉, 성교곤란증 등이 해소되었고, 남편의 성기능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 당연히 자연임신이 되었고 무난히 출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입니다.’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한다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다면 오히려 아이가 생길까 봐 피임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상당 기간 임신이 안 된다면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서양의학적인 검사와 진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의학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턱대고 인공수정, 체외수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한의약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통하여 자연임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한의약은 이미 수 천년 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원인불명의 난임’이란 상병명도 서양의학적인 진단에 국한된 것이고 이 중에는 한의학의 관점으로는 충분한 원인이 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면 임신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의약적 치료로 생식건강이 향상되면 설사 자연임신을 못 해도 양방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시 난임사업에서는 한양방 병행 치료를 통하여 체외수정 단독 임신 성공률을 훨씬 상회하는 54.1%의 임신성공률을 보였고, 여러 논문들을 통하여도 이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충분히 자연임신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부가 무턱대고 양방의 보조생식술에만 매달리다가 여러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먼저 한의약의 치료로 자연임신을 시도하거나, 보조생식술을 받으면서 함께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의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우리 사업을 통하여 임신 출산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찾아온 크리스마스 선물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지예 한의사



2021년 2월 27일, 이번 난임 환자는 만 36세였다. 인공수정을 3회 시도했으나 결과는 모두 비임신. 자궁에 폴립이 있어서 제거한 뒤 자궁내막 환경도 깨끗하고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나, 세번째 인공수정도 임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생리를 시작한 다음 날 한방치료로 발걸음을 하였다. 수년간 계속된 자연임신 시도와 인공수정으로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지친 기색이 있었으나 난임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며 한 줄기 소망을 붙잡고 오신 듯했다.

하얀 피부에 생각이 깊어 보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환자였고, 마른 몸에 소화가 썩 잘 되는 편이 아닌 ‘비기허’의 증상들을 보이고 있었다. 임신을 방해할 만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진을 지속해 나가는데 특이점이 보였다. 작년 9월경까지는 생리주기가 35~38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18~22일 주기로 줄어들었고, 인공수정을 진행한 차병원에서는 ‘aging (노화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AMH 수치는 2였는데, 수치가 나이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생리주기가 많이 짧아진데다, 생리량은 점점 더 많아졌는데 2일 정도는 대형을 꼭 채워서 생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환자는 생리량 증가를 ‘자궁 내막이 더 두꺼워지고 건강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출혈량이 많이 늘어나면,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식증 같은 질병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분은 근종도 없고, 내막 두께도 문제가 없다고 했으므로, 생리시에 출혈이 과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었다.

3~4년 전에 임신을 하고 싶어서 한약을 먹었으나 소화가 잘 안되고 무른 변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소화력을 복돋아 주고 위장 기능에 불편하지 않도록 약을 처방해 줄 필요가 있었다. 비위가 약한 것, 생각이 깊고 많은 것, 기력 저하, 생리통, 과다 출혈이 있음을 고려하여 온토육린주합귀비탕에 반하, 포황 오령지를 추가하여 처방하였다. 온토육린주합귀비탕에 들어가는 인삼, 황기, 백출, 감초는 비위허약에 사용하는 보익약이며, 파극천은 성질이 따뜻하여 궁냉불임(자궁이 차서 생기는 불임) 증상에 사용하는 약재이다. 특히 당귀, 인삼, 황기는 기허로 인해서 생기는 출혈을 멎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비위가 허약하므로 신곡, 목향, 반하로 소화를 도와 속쓰림을 교정하고, 음식을 먹을 때 속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설사를 예방하였다. 추가한 포황, 오령지는 지혈하고, 생리시 통증을 해소해준다. 약을 처방하면서 과다한 생리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미리 고지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생리 중이므로 추후 내원하여 배란 전에 초음파를 보기로 하였다.



보름 뒤에 초음파를 확인했을 때 2.24cm의 난포가 보였다. 배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이다. 자궁내막 두께는 0.94~1.24cm 정도로 정상적이었다. 내막 두께로 보아 자궁내막증식증은 아니었고 근종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주 초음파상 황체만 남은 것으로 보아 배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짧아졌었던 생리 주기가 이번에 좀 더 길어져서 24일 주기로 생리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과거의 생리량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실망한 기색을 보였으나, 나는 지금 처방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생리 주기가 전보다 좋아졌으며 이번에 나오는 생리가 자궁내막 두께에 맞는 정상 생리임을 알려주었다.

다음 내원시에 배란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초음파를 확인하였다. 자궁내막 두께는 0.89cm, 오른쪽 난소에서 직경 1.57cm의 난포가 자라고 있었다. 난포 성장 속도에 맞는 내막 두께였다. 2~3일 뒤에 배란이 될 것인데, 배란이 될 때 정자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난자를 만나는 것이 좋으니 배란 전에 부부관계를 하시도록 권장하였다. 환자는 배란 전날과 배란일, 딱 2번 임신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17일 뒤 환자는 몸이 부대끼고 피곤하며 빈뇨가 있었다고 호소하였다. 며칠 뒤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테스트기를 해본 결과 두 줄이 나왔으나 줄 하나는 많이 연했고, 이틀 뒤에 연했던 두 줄이 진해졌다. 기초체온이 올라가고, 유두통증, 미세한 하복통, 분홍색 소량출혈이 있어서 안정적인 착상을 돕기 위해서 수태환을 처방하였다. 환자가 기허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고, 현재의 출혈은 착상혈로 보였다. 이럴 때 토사자, 곡기생, 속단, 아교로 구성된 수태환으로 복용하면 출혈이 잘 멎고 유산을 예방하며 환자도 한결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평소 소화력이 약한 데다, 입덧이 시작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수태환에 사인과 진피를 추가하여 소화를 도왔다.

그해 겨울, 12월 25일에 아들을 출산하여서 잘 자라고 있으며, 초반에는 산후풍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괜찮아졌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며 황폐해져가는 한국을 조망해야 있는 지금, 어떤 소식보다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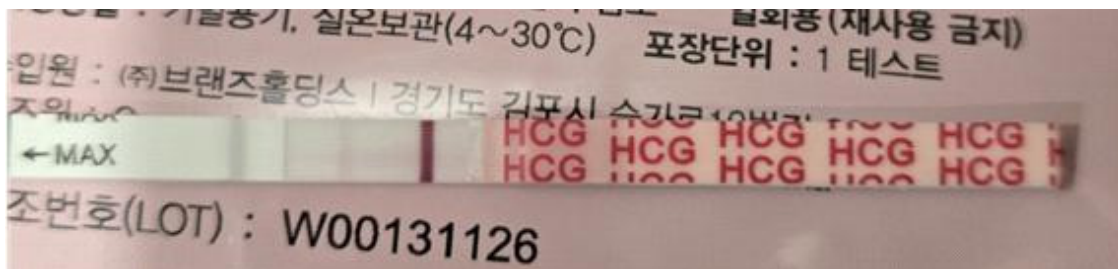
희망의 씨앗을 튼튼한 의난임사업, 한 달의 기적

[부산광역시] 정연수 한의사

부산시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한 환자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34세 여자 환자로 3년간 자연임신을 시도했으나 임신이 어려웠던 분이셨습니다. 3년간 아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3년도, 24년도 각각 한 번씩 임신이 되긴 하셨으나 첫 번째에는 아기집과 난황까지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가 되어 갔더니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하여 소파술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임신테스트기로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오다가 출혈을 동반하면서 자연 유산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유산이 주는 절망감과 좌절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유산을 하면서 다음 임신을 걱정스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던 환자분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기 위해 밤새 줄을 서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 좋다는 건 다 해보셨다고 하셔서 저 역시 꽤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체질에 맞춰 자궁의 온기를 보강하고 착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 한약을 처방했고, 배란기에 맞춰 혈류를 개선하는 침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의지가 강하셔서 처음부터 열심히 치료를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치료는 단 한 달. 배란 확인을 하고 매 주기 시도하면서 치료하자고 했지만, 생각보다 바로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으로 나와서 사진을 보내주셨고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수치 124를 확인하셨습니다.



수치를 확인했지만 이미 2번의 유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환자분 모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상유지에 초점을 맞춘 한약을 추가적으로 처방해 자주 드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난 후 환자분은 드디어 3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3년간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진행한 치료가 환자분께 부족한 딱 한 가지를 채워주면서 임신에 성공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놀랍고 뜻깊은 경험이었고 자연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생각하던 중 이러한 사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난임 환자분을 만나고 치료를 하고 있지만, 환자의 검사 결과나 데이터가 좋다고 무조건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막이 얇아서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환자가 바로 임신을 하는 등 임신은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알 수 없고 답답할 때 한방치료가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한의난임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단기간의 치료로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업이 지닌 가치와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많은 부부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한의난임사업이 난임치료에 있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많은 부부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한의난임사업이
난임치료에 있어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양유찬 한의사



진료실에서 난임 부부를 마주할 때면 저는 종종 숨을 고릅니다.

그분들의 표정 너머로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는 단지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떨구고, "친한 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냥 핸드폰을 꺼버려요." 그 말에 맺힌 눈물을 억누르며 미소 짓는 모습은 늘 제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그 고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SNS를 지우고, 심지어 부모님이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저 말없이, 조용히 견디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라는 선의의 말조차 벽차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될 만큼요. 한의사로서 저는 그동안, 그저 처방만 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바라봐 주고, 그 위축된 삶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주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난임이라는 상황은, 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관계, 일상의 균열이 함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한약 치료를 망설이며 문턱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봐야 했습니다. "정말 하고는 싶은데... 솔직히 부담돼요." 한약은 아직 보험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안타깝게 놓치는 치료, 놓치는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 사업—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꼭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 덕분에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분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분들, 다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분들.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에도 결과가 없던 분들. 지쳐 있었고, 무기력했고, 이미 반쯤은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좀 웃게 돼요. 잠도 잘 오고요. 남편이랑 같이 산책도 해요."

그리고 몇 주 뒤 — "선생님... 저 임신 됐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임신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AMH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운 여성, 자궁선근증을 앓고 있는 분, 정자 운동성이 극히 낮았던 남성 등.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지만, 그분들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단지 한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응원과, 그 응원을 이을 수 있도록 마련된 손길, 그리고 그 손을 용기 내어 잡아준 환자와, 끝까지 함께 걸어간 한의사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지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생명의 시작도, 온 나라가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정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져서 더 많은 부부가, 더 많은 아이가, 그 따뜻한 시작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 위에 한의사로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지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생명의 시작도,
온 나라가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희망을 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이 만든 생명의 기적

[인천광역시] 오현민 한의사

마흔셋, 더 이상 아이는 없다고 믿었던
어느 부부가 지금은 출산후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웃는 이 부부의 모습은,
정부의 한방난임 지원사업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결과였습니다.

2024년, ○○한의원에서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참여한 17쌍의 부부 중 3쌍이 자연임신에 성공하였고, 이후 한약치료를 마친 직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추가로 2쌍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임신 성공률은 41.18%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기에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던 실패 사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 여성 연령은 37.88세, 남성은 38.18세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35세 이상이면 난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임신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AMH(난소 예비력) 수치가 1ng/mL 이하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낭성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난임을 유발하는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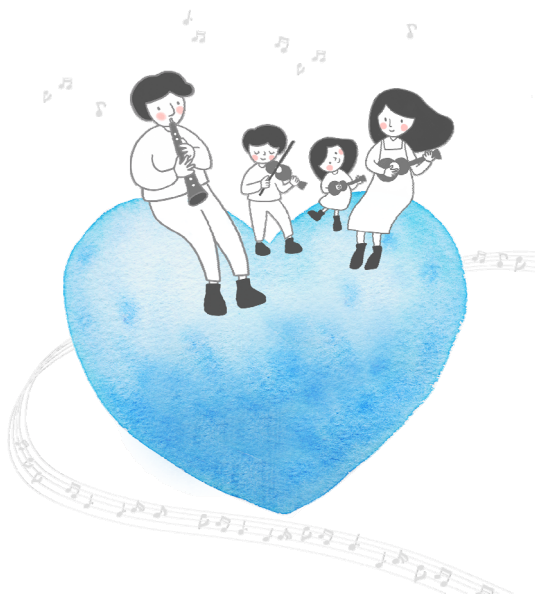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41.18%의 임신 성공률을 달성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한약치료를 통해 난소 기능이 개선되고, 자궁 내막의 혈류가 회복되며, 착상 환경이 정상화되는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시험관 시술 직전까지 한약을 병행한 경우 배란 상태가 개선되고, 착상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방 난임 치료는 체질을 개선하고 생식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방식으로, 임신 성공뿐 아니라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치료를 통해 더 많은 부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치료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게 했습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은 고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던 수많은 부부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제공했고,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임신이라는 기회를 다시 만들 수 없었을 가정도 적지 않은 만큼 정책적 진정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임신 여부를 넘어 난소나 지표인 AMH 수치의 변화, 정자 운동성과 기형률 개선 여부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고 분석하는 한의학 기반의 통합 난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방치료의 재료 및 생활환경적 작용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며, 향후 난임치료를 보건산업화로 고도화 하는 데 국가적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국민과 국가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속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업이 만들어낸 생명의 탄생처럼, 전통과 첨단이 만나고, 국민이 함께 이뤄내는 공동체의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료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험관출산 후 둘째 시험관실패로 찾아온 AMH 0.6 여성의 자연임신과 유산방지 한약

[인천광역시] 고화선 한의사

난임한약을 통한 임신성공사례는 많지만, 출품사례는 그 중에서도 단순한 임신성공에 그치지 않고, 임신 초기 유산증후를 한약치료로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하게 출산까지 이르게 한 경험입니다. 임신율을 높이는 한약과 난소 예비력을 호전시키는 한약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착상유지와 유산방지를 위한 한약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본 사례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2019년도부터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배란일을 계산하여 주기적으로 임신을 시도하여도 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난임병원을 방문하여 배란날짜를 받은 뒤 간신히 자연임신에 성공하였으나, 아기집이 보이지 않아 결국 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시험관임신을 통하여 어렵게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둘째를 원하여 다시 시험관 임신을 하였으나, 9주차에 유산되어 소파수술을 한 후 본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2023년 7월 AMH수치가 0.638로서 35세인 또래보다 10살 가량 노화된 난소에 비력을 보였는데, 본원에 내원하여 2024년 6월 2일부터 난임지원 한약으로 궁귀조혈을 가감방을 1개월간 복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자는 어릴 적부터 있었던 이명이 사라지고, 상열감과 두통, 야간뇨가 사라졌다고 하였는데, 7월 3일에는 배란테스트기를 통하여 임신을 확인하였다면서 자연임신 성공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차례 유산을 경험했던 환자는 이번에도 임신 초기에 갈색분비물의 유산증후를 보였습니다. 환자는 과거 난임병원에서 유산방지 호르몬제를 복용하였는데도 유산이 됐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착상과 태반형성을 도와 임신을 유지시키는 한약으로 가감팔진탕을 유산방지 호르몬제와 겸복 시켰고, 8월 2일에는 유산 증후가 모두 사라지고, 몸도 편안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덧으로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여 상기처방에 사인을 가하여 임신부 안태보약을 마저 복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3월 5일 임신 39주차에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현재는 두 아이 육아로 몸은 힘들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부인문 첫 구절은 구사(求嗣, 자식을 구하는 법)문으로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법도는 자식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초가공식품과 합성 화학물질들이 속출하면서 인류는 전례 없이 더 복잡하고 치료하기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인 생명현상의 본질인 잉태가 되지 않는 난임환자들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난임치료에 현대의학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자연적인 한약치료와 동의보감의 절제된 생활습관 티칭이 보완되어 어우러진다면 왜곡된 현대인들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자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여 년 검증의 역사를 가진 현대의학 이전에, 이미 2000년간 수천만 명에 대하여 반복 검증되어 정리된 한의학이라는 인류의 지혜와 혜택이 더욱 보편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이미 왕세손의 임신 중에도 태아의 안정과 유산방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임신 10개월간 한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태중에서 한약을 복용한 덕분에 강인하게 살아남은 조선의 후예들입니다. 한의학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왜곡을 바로잡고, 전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양·한방이 함께 힘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법도는 자식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식을 얻는 일은 사람 사는 길의 시작이다.

[광주광역시] 임승일 한의사



난임환자에 대한 한의학의 치료목적은 환자가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임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러한 길을 가는데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했다. 이는 모든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위 중 가장 내밀하고 중대한 성생활은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즉, 임신이란, 그야말로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난임환자의 경우, 대체로 성생활을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상식이지만, 이런 사고 패턴은 ‘임신하기 위해 성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배란기 이외에도, 가능한 한 많은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제로, 배란기를 특정하지 않고 성생활의 빈도를 주 2~3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성생활은 임신이 아니라 임신하고자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부관계의 유지와 건강, 행복 등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부부는 ‘임신하기 위해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성생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생활을 포함한 부부생활을 진료실에서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자식을 얻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가 그 계획을 승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난임 진료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랑이 사는 길이 자식을 낳는데 시작된다.”라고 하여
자식을 얻는 것은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유전자를 종속시키기 위해 번식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그 자식을 낳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 “구사(求嗣)의 도(道)는 부인의 경도(經度)가 고른 것을 요구하고 남자의 신(神)이 족한 것을 요구하며 또 감심(感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상책이 되는데 …”라고 하여 남녀 모두의 원인과 더불어, 단순히 생리, 병리적 관련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한 삶의 태도에 주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000씨(F/34), 000씨(M/38) 부부는 2019년 3월에 첫째 딸을 출산한 이후 대략 3년 동안 둘째 아이를 갖고자 하였으나, 여성의 좌측난관유착과 남성의 정자운동성 저하 등으로 난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하여, 2023년 2월 2일에 본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게 되었다. S 부인의 경우, 부정기출혈과 성교후 출혈 등의 월경 관련 증상과 진료 과정에서 반복되는 감기와 코로나 감염, 복부비만(카복시 시술)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첫째 아이 육아에 매어서 자신의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등이 부재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의학적으로 ‘경도가 고른 것’은 자궁내막의 상태가 건강함을 의미한다. 자궁내막은 착상을 하기 위해 부풀어 오르고, 착상이 되지 못하면 흘러내려 월경혈이 된다. 월경혈이 건강한 상태는 한의학적으로 생리적인 ‘담음(痰飲)’의 상태이며, 이는 자궁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을 영양하는 ‘진액(津液)’과 다름없다. 따라서 ‘경도를 고르게’ 한다는 것은 건강한 자궁뿐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의미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담음, 기혈, 진액에 관한 치료와 더불어 나름대로 섭생을 건강하게 하면서부터 자궁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감염증 등도 개선되게 되었다.

남성 불임의 경우, 대부분 정자에 국한하여 난임의 원인을 찾기 때문에, 정액 검사를 통해 난임 판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정자만 건강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에서 정액과 정자는 ‘신(腎)은 폐장(閉藏)을 맡고, 간(肝)은 소설(消泄)을 맡고 있는데, 신과 간은 모두 다 화(火)를 지니고 있으며 그 계통이 위로 심(心)에 속한다.’ 이는 남성의 성기능과 관련된 한의학적인 기능계로 설명될 수 있다.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본능적으로 종근(宗筋)이 발기되는 것은 간기능계에, 발기가 유지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정을 하는 것은 신기능계에 속하며, 이러한 두 기능계는 심기능계[정신신경계]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보감』에서는 ‘구사의 도는 남자의 신(神)이 족한 것이 요구하며 또 감심(感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상책’이 되지만, 정자를 건강한 것을 상책으로 두고 있지 않다. ‘신이 족하고 감심(感心)이 적고 마음이 맑게’ 되는 것은 한의약에 의한 시술과 치료의 대상만이 아니라, 성생활을 포함한 생활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두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욕생활은 정액의 양과 농도, 총 정자수는 증가시키지만, 반대로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켜 생식기능의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성행위를 남성의 욕정을 푸는 도구로 삼는 의식이야 말로 ‘신이 부족하고 감심이 많고 마음이 혼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경우, 첫째 아이의 육아를 부인에게 맡기고 본인은 사회인야구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부부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과 같으며, 성생활 횟수가 줄고 성욕이 감퇴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가족 역학 관계에 대해 환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상담하였다. 숙면하지 못하고 매해기, 피로감 등의 증상을

정허(精虛)와 허화(虛火)의 상태로 보고 신정을 회복하고 허화를 개선하기 위한 침구치료와 약침, 한약 등의 치료를 지속하였다.

집중치료기간(3개월)에 임신하지 못하였지만, 부부 모두 관리 치료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면서 규칙적인 식생활과 운동, 성관계 등 건강한 부부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진료 시작 6개월만(7월 24일)에 임신이 확인되었다.

난임환자에 대한 치료 성공률은 제한적이다. 저출산과 출산의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양·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성공한 경우보다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대체로 4~5배 정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난임 치료의 목적과 성공을 단순히 임신이라고 설정하기보다는, 건강한 성생활을 포함한 부부생활과 더불어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치료과정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한의난임치료는 환자에게 ‘사람 사는 길’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절된 희망을 잇다 - 유산의 상처를 보듬은 한의난임치료

[울산광역시] 성주원 한의사



2022년 12월 어느 날, 000님은 밝은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어 이야기했다.

“됐어요. 임신 성공이에요!”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 있었고, 이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000님은 조심스럽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가 7개월 되었을 때, 유산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하지 기형이라고 해서...” 000님은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 사례의 시작은 울산광역시한의사회와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2022년 울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한방 공공의료 모델이다.

000님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였지만, 친정이 우리 한의원 인근에 있어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한의원에 오셨다. 2022년 7월 6일 처음 내원하셨는데, 당시 000님은 마른 체형에 피부는 창백했으며, 맥도 가늘고 약한 상태였다. 특히 소화기능이 매우 약한 상태였고, 음식 섭취에 대한 어려움과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였다. 2020년에 임신 7개월 때 유산을 경험한 후, 수차례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심리적 위축도 큰 상태였다. 치료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몸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드는 것이었다. 급하게 보약을 다량 투여하지 않고 산사, 신곡, 맥아 등 소화기능을 돕는 약재를 중심으로 처방을 구성하였다.

주 2회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하되, 중심은 항상 소화기능의 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맞추었다. 스트레스가 소화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부자 등 칠정(七情)을 조절하는 약재도 함께 투입하였다. 치료를 꾸준히 한 결과, 이전에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2달 정도 후에는 ‘부정맥이 80% 정도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해 주셨다. 이는 전신 순환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향부자는 감방하고 홍화를 추가하여 혈류 개선에 더 집중하였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연임신이 아니라 시험관 시술로 임신이 되었다는 점이다. 남편분도 직장생활 등으로 피로하신 상황이었고, 숙제를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시간적으로도 무한정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한의사인 내 고집만 피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000님 또한 처음에는 임신에 대한 욕심을 거의 버렸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지만, 치료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자 스스로 다시 시험관 시술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임상이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도 000님은 이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보통 시험관 시술을 받으면 며칠간 엄청 컨디션이 떨어졌었는데, 한방치료를 하고 나서부터는 컨디션 저하가 훨씬 덜하다는 것이다. 병원 측에서도 배아 등급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컨디션과 기력의 회복이 난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2022년 12월에 임신에 성공하였고, 착상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임신 소식을 전한 날, 밝은 얼굴로 들어온 000님은 이후 과거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는 다시 임신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니깐...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속사정을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터라, 감정 해소가 더욱 쉽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사례는 단순한 난임 지원을 넘어서, 000님의 삶 전체에 걸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000님은 건강하게 출산을 마친 상태이며,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

치료 당시, 환자분은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험관 시술 병원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배아 등급이 몇 달 사이 현저히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의료진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기에, 000님도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한의치료가 체질 개선과 생식 기능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진료 협력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한방의 건설적인 협력 환경이 조성된다면,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다른 많은분들께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는 직역 간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서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난임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 협력적 모델을 구축했으면 한다. 한방과 양방이 적절히 소통하고 협진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이 땅에 잉태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첫째 조산한 난임 산모의 한의 난임 치료 후 둘째 출산 사례

[울산광역시] 채기현 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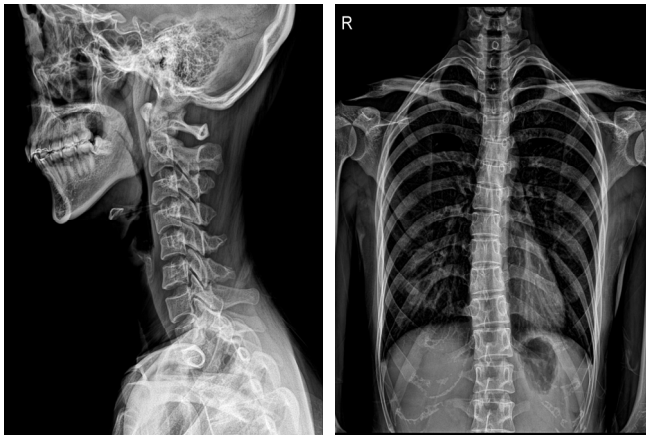


2024년 1월 하순에 만 28세 여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은, 만 31세에 난소 나이 38세였던 분께서 10달간 한의 난임 치료 후 아들 출산하셨고, 이어서 임신 후 딸도 태어난 분입니다. 이분은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이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첫째 임신 중에 식단 조절을 권유받았고, 권유에 따라 음식 조절하는 중에 감염으로 25주 만에 조산하셨습니다. 33개월 된 첫째 아이는 발달장애로 치료 중이고, 아기는 심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내원 1년 전부터 난임이었고, 내원 한달 전 양방 검사상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양방 검사 이후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생리는 없고, 배란만 2번 있었고, 부정출혈이 있었습니다. 검사 전의 생리 주기는 34일에서 1~2일을 빨라지거나 느려졌었고, 생리량은 보통, 덩어리 없고, 진통제는 복용하지 않았고, 첫날 생리통만 있었고, 생리전에 뭔가 먹고 싶고, 화가 잘나고 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키는 172cm, 체중은 51.6kg, BMI는 17.4로 저체중입니다. 체성분 검사상 골격근량은 20.6kg로 표준이하로 근육량 저하, 체지방률은 24.7%, 복부지방률은 0.84(표준범위 0.70~0.80)으로 마른 비만으로, 어려서부터 저체중이셨다네요. 경도 2급 부정교합, 오른쪽으로 아래턱 치우침 및 왼쪽 턱관절이상, 안면비대칭 있습니다. 2급 부정교합 중 하악전치가 전혀 안 보이던 분 중에서 2021년 만 5개월가량 난임치료 후에 2022년에 둘째 아들을 출산하신 ○○에서 오신 분보다는 가벼운 정도입니다. 스트레스성 피부염으로 손에 한포진이 같이 있었습니다. 한포진은 중학교 때 목뒤와 얼굴에 있다가, 고2때 손에 생기면서 얼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변도 3일에 1회 딱딱한 편이었고, 잘 체하고 더부룩해지고 물은 하루에 1컵 드시니, 소변도 하루에 2번 보셨고, 발이 찬 분이셨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1자목, 경도 측만증, 횡격막하수, 장하수가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안 맥진기 검사상 단삼맥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 대변 3일에 1회에 딱딱한 편은 진액과 음혈이 부족한 것이죠. 대변은 장상태를 보여주는데, 장(GALT:Gut-Associated Lymphoid Tissue)에 인체 면역세포의 70~80%가 있고, 뇌장축(Brain-Gut Axis) 이론에 의해 장은 뇌에 영향을 주기에 인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대변을 1일 1회 보는 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턱관절의 위치이상 및 상부 경추 아탈구로 인한 뇌척추 기능이상을 턱관절균형요법의 맞춤형 균형장치 치료 CBA와 표준형 균형장치치료 TBA 비롯한 추나치료, 한약, 침구치료 등으로 다스렸습니다.



언제 임신이 될까 기대하며 기도 중에 기다리시던 중에, 임신 안되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가 하셨습니다. 임신을 위한 기본 목표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 1) 생리의 정상화:
- 2) 수족냉증 소실,
- 3) 얼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생리의 정상화는 생리통이 사라지고 덩어리가 없어지고 주기가 일정해지고, 2) 수족냉증이 사라지는 건,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손발에까지 혈액공급과 순환이 잘되는 징표니, 당연히 인체 심부의 생식기와 관련 부속장기에도 혈액의 순환이 잘되는 것이고, 3) 얼굴은 전신 경맥이 모이고 곳으로 감정과 온도, 마음 상태 등의 드러나는 곳이죠. 치료후,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증가했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단 이야기 듣고 2~3달 안에 임신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울산시와 함께하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시작 두 달전부터 몸이 너무 허하신 편이라, 녹용을 가미한 한약을 보름치(하루 3회)를 본인 부담으로 2번 복용하셨고, 울산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덕택에 한약을 5회 더 복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약을 6회차 복용하시면서 대변은 아직 딱딱한 편이나, 2일에 1회 보는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한약 7회 복용 중에, 임신 4주 6일로 거의 점 정도의 아기집을 확인을 통해 임신성공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한의 난임치료 시작 만6개월 7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임신 37주차에 제왕절개로 건강한 둘째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기쁨이며, 지역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녀의 출생에 동반하니, 큰 보람을 느낍니다.

낮은 AMH에도 다시 피어난 생명 - 한의난임사업이 만들어낸 기적

[울산광역시] 송영길 한의사



“자연임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세 000씨가 처음 병원에서 들은 말이었다. AMH 수치 0.5, 검사상 추정되는 난소 나이는 45세. 절망과 체념이 가득한 얼굴로 내원했던 그녀는 00시 한방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 한의난임사업은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공공사업이다.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하는 이 사업은 단순히 환자의 임신 성공 여부를 떠나, 건강한 출산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다. 000씨의 사례는 한의난임사업이 가진 가치와 성과를 잘 보여줄 것이라 사료되어, 이 경험을 성과대회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000씨는 2024년 1월 자연임신에 성공했지만 자연 유산을 겪은 이력이 있었으며, 평소 월경 때마다 허리와 골반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산 이후로는 쥐어짜는 듯한 복부 통증까지 더해져 생리 시작일부터 이튿날까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환자를 진맥한 후 체질을 진단해 보니, 신허(腎虛)와 어혈(瘀血) 증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 조(燥)한 체질이 임신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난임 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6제의 한약 중 4제까지는 자궁의 기혈을 보하고 울체된 어혈을 풀어주며, 순환을 도와 저하된 생식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약재를 구성하여 처방하였다. 그렇게 4제를 복용한 후, 그녀에게서 자연 임신 소식이 들려왔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유산을 겪게 되었다. 환자는 실망과 자책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다시 의지를 다졌다. 환자가 습관성유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에는 몸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5제부터는 녹용을 추가해 신기(腎氣)를 보강하고, 자궁 내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방 구성을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환자가 임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가벼운 운동과 따뜻한 식사를 포함한 생활 습관 전반을 함께 조율하며, 한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병행하였다.

이 사례는 그저 한 번의 임신 성공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연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던 환자가,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다시 희망을 갖고 생명을 품을 수 있게 된 작지만 분명한 기적이다.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바라보며 전신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난임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본다. 이러한 한의학의 전인적 접근 덕분에 임신
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 과정이 공공의
료 제도 안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제공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한의난임사업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한의약의 공공성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도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000씨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내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인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실
제로 이 사례를 계기로 환자의 지인을 포함한 여성 환자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고, “한방
치료로도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치료 이후, 자신의 경험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진심 어린 언어로 전하기 시작했다. 자연임신이
불가능해 보였던 자신이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다시 희망을 품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를 주변에 자연스럽게 전파해 나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치료 경험
을 넘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건네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그녀의 임신은 수많은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분명한 지표가 되었으며, 이는 한의난임사
업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형식적인 말이나 홍보물이
아니라, ‘난임 환자’에서 ‘엄마’로 거듭난 여성의 실제 변화와 경험은 사업의 가치를 와닿게 해
주는 생생한 결과이자, 신뢰감 높은 실제 근거이다.

앞으로도 한의난임사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가능성을 심어주
는 건강한 씨앗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이 작은 사례 또한 그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근거로 남기를 소망한다.

〈첨부〉 AMH검사 결과보고서

검사결과보고서

1/1
 LABORATORY REPORT

병(의)원명 수진자명 생년월일 차트번호 검체종류 S:Serum	기관번호 진료과/병동 의 사 명 접수번호 44-20240305-0903	검체채취일 접수 일시 2024-03-05 17:32 검 사 일시 2024-03-06 결과보고일시 2024-03-06 16:39 기 타
--	--	--

보험코드	검 사 명	결 과	판정	참 고 치	검체
0325001H2	TSH	2.970		0.270 ~ 4.200 μ IU/mL	S
0323009H2	T3	0.79		0.67 ~ 2.00 ng/mL	S
0323005H2	Free T4	1.41		0.76 ~ 1.70 ng/dL	S
0373000H2	Anti Mullerian Hormone	*별지참조*			S
검사보고 완료입니다.					

[수진자정보]

나이 32.5 체중/신장/BMI 60kg / 161cm / 23.15kg/m² 최종월경일 2024-02-28
난소수술여부 NO 과거생리습관 규칙적

[검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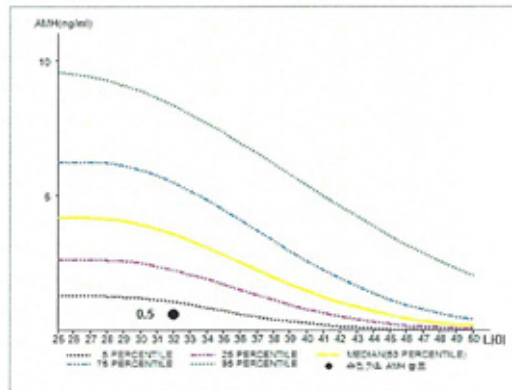
AMH 결과 및 분석

AMH Conc. 0.50 ng/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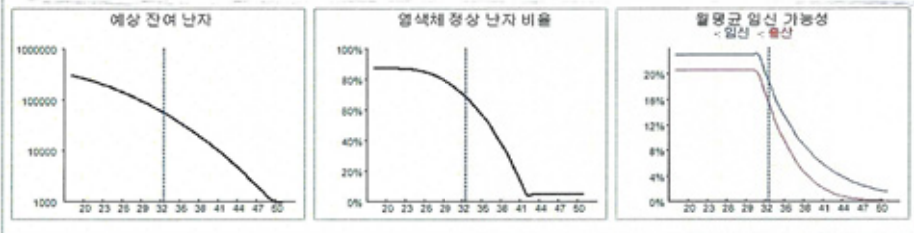
AMH 농도는 동일 나이군에서 0 ~ 5 percentile에 속하며, 45 ~ 46 세의 중앙값에 해당합니다.

상기분석은 배란장애가 있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소견이 있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소반응 예측결과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시 저반응군 (low responder)에 해당합니다.



나이에 따른 기본 자료



귀하의 나이만을 고려하였을 때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는 약 55,000 개로 추정되며, 배란되는 난자 중 약 68 %가 염색체 이상이 없는 건강한 난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평균 임신 가능성은 18 % 정도이고, 건강하게 분만할 가능성 약 15 %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정보와 검사기관에 관한 정보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삭제하였습니다.

희망을 품게 해준 한의사회 난임 지원사업

[경기도] 김다운 대상자



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2018년 결혼 이후 저희 부부는 소위 ‘딩크족’으로, “아이 없이도 부부가 행복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주변 지인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레 우리 가정에도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품고자 하는 마음은 깊어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 다. 몇 년에 걸쳐 임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 모두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아기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 다. 결국 ‘난임’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진료를 맡아주시던 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다음 진료부터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준비해 보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셨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평소 자주 찾던 동네 한의원의 한의사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이곳에서는 도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OO도 한의사회 난임 지원사업’이 있으니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한 줄기 희망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이 제게는 큰 위로이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의사회에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 거주지 인근에 해당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한의원이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한 결과, 저희 부부는 난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와 준 아이. 지금은 13개월 된 저희 아이는 단지 저희 부부의 노력만으로 얻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의할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한의사회 선생님들, 정성 어린 진료를 해주신 수강한의원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데스크 선생님 모두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저희 가정에 귀한 생명이 찾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특히 이 난임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꾸준한 진료와 더불어, 산후 회복을 위한 약재 지원까지 해주신 덕분에 출산 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 출산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 어느 하나도 쉬운 과정은 없었으나 OO도 한의사회 난임 지원사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한 가정의 엄마인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사업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을 ‘은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년 난임 극복! 3개월 난임한약지원사업이 준 기적

[경기도] 김 연 대상자

주위에서 "한 번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자랑 섞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왜 저 사실이 자랑이 될까? 의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수많은 노력과 간절한 기다림 때로는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임신의 여정에서 잉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어요. 혹자는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을 "복권을 딱 한 번 샀는데 바로 1등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분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임은 필수"라는 교육과 메시지를 비롯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한 정보는 넘쳐났고, 그 중요성은 가임기 여성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덕분에 저 또한 직장에서의 승진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난임'은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자 '젊은 난임'이라는 단어가 더는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처음 조심스레 가족계획을 세우며 남편과 함께 산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론 AMH 수치, 정자 검사 등 자연임신의 척도가 되는 수치가 나쁘지 않으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소견에 마음 편히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임신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자, 그때부터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반년 안에 임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고, 제 주변에서도 임신 소식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 매달 찾아오는 실망감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제야 '아기 생기는 게 쉽지 않다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 제가 직면한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임신을 위해 저와 배우자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다는 영양제를 같이 꼼꼼히 챙겨 먹는 것은 기본이고, 민간요법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쑥즙과 직접 밥솥으로 달인 대추청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복대를 꼭 차서 배가 따뜻하게 신경 써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병원에 방문하여 배란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정확한 배란일을 확인하고 몸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호르몬주사와 호르몬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일부 지인은 조심스레 시험관 시술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아기를 맞이하고 싶다는 바람이 컸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과정보다는

스스로 몸이 준비되어 자연스럽게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레 노력하자."는 남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먼저 출산에 성공한 친언니로부터 한의학적 방법을 권유받았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시어머니께서도 한약으로 임신에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한방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 한의난임지원사업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명이다! 최선을 다할 마지막 기회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난임 추가검사를 진행한 후에 지원서를 정성스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한의난임지원사업에 남편과 같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방문했던 한의원이었는데 문을 들어서자마자 순간부터 정겨운 한약 냄새와 따뜻한 환대에 이번엔 정말 아기가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꼼꼼히 문진표를 작성한 후 이어지는 최첨단 의료기기를 활용한 진단 과정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또한 진맥과 혀의 상태를 비롯하여 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과학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로 바탕으로 진단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제 마음에 깊은 편안함과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처방받은 한약은 그동안 복용했던 호르몬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제 몸 상태에 꼭 맞는 맞춤 처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식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꼭 맞춰 한약을 복용하고 매주마다 방문하여 뜸과 침 치료를 받을 때는 알게 모르게 지쳐 있었던 심신마저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의원에 남편과 방문하며 중요한 임신과정을 배우자와 함께 같이 노력하며 보냈다는 점 또한 의미 있었습니다.

한의난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3개월이 끝나가던 지난 겨울,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한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소중한 아기가 이제 2주 후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뱃속에서 느껴지는 활발한 태동이 눈물나게 감사한 걸보면 진심으로 아기를 원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엄마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 역시도 한의난임지원사업과 함께한 저로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한의난임지원사업 감사합니다.

포도송이 난포에서 피어난 기적



[경기도] 김인에 대상자

아이들을 유독 좋아하는 나는 어려서부터 세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꿈이었다. 그래서 훗날 태어날 아기들에게 영향을 줄까 늘 조심스러워 약물보다는 민간요법에 의존했고, 화장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곤 했다. 그러다 보니 20대 시절,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는 ‘극성 예비맘’으로 불렸다.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지나칠까 조바심이 나서 계획보다는 조금 이른 28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다. 신혼 초에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기다렸고, 그 후 1년간은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했지만 소식이 없자 난임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검사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월경도 규칙적이고, 유난스레 몸을 아껴왔던지라 큰 걱정 없이 지내왔는데, 검사 결과 나는 심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초음파 화면에는 터지지 못한 난포들이 포도송이처럼 쪼여 있었고, 혈액검사에서는 AMH 수치가 10.82로 측정되며 정상 상한치를 훨씬 웃도는,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겉보기에는 난소 기능이 활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배란이 이뤄지지 못한 난포들이 난소에 그대로 쌓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난소의 기능적 나이를 재차 묻자, 의사 선생님은 “난소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해 난소 나이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답하셨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을 자부하던 남편의 결과마저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자연임신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니, 오늘부터 바로 시술을 준비하자고 권하셨다. 검사 결과도 충격이었고, 약물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나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빠져나오듯 병원을 나섰고, 밤낮으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희망 하나를 발견했다. 바로 ‘00도 난임부부 한약 지원사업’이었다.

사실 나는 과거,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던 시절,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심했던 증상이 한의학 치료로 완치된 경험이 있었다. 덕분에 한의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거다!’ 싶은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했고, 시술을 권했던 병원에 다시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시간 낭비’라며 못 마땅해 하셨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 진단서를 받아내어 사업에 신청했고, 남편과 나 모두 3개월 간 한약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신뢰가 가는 한의사 선생님을 만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받았고, 한약 복용과 함께 주 2회의 좌훈 치료와 침치료도 병행했다. 그러자 차갑던 손발이 점점 따뜻해졌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바로 아기가 찾아오진 않았고,

치료 종료 후 두 달까지도 임신 테스트기에서는 ‘단호박 한 줄’이 반복되는 좌절이 이어졌다. 각오했던 일이지만, 주변에서 하나 둘 씩 들려오는 임신소식에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몰려왔다. 결국 ‘아, 역시 내 몸은 자연임신이 안되는구나.’ 하고 시험관 시술을 예약해 둔 12월 어느 겨울날, 마음 편히 떠난 여행지에서 선물처럼 자연임신으로 첫 아이가 찾아와 주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아무런 탈 없이 39주 2일을 보내고, 3.53kg,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우리에게 와주었다.

첫째 아이는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건강히 자라주었고, 두 돌 무렵 두 번째 아기가 찾아와 주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몸을 다잡고 맞이하지 못했던 탓이었는지 안타깝게도 7주 만에 유산이 되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여전히 심한 상태였다. 그렇게 한차례 아픔을 겪고 난 후, 다시 한번 이 사업에 참여하여 유산 후 회복을 위한 보약을 곁해 한약 치료를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기가 찾아왔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딸이었다. 여리여리한 공주님일 줄 알았는데, 오빠보다 더 튼실한 3.58kg의 통통한 아기였다. 이번에도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 주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부는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겪는 아픔과 시행착오에 비하면 매우 순조로운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 치료로 몸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다른 방법부터 시도했다면, 이처럼 안정적인 과정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년 가을, 우리 가족은 경기도 한의사회로부터 난임 결과발표회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당시 나는 임신 7개월 차에 남편은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린 첫째와 함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결심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 친정엄마가 동행해 주셨고, 남편도 바쁜 일정을 쪼개어 행사장에 와주었다. 그날 행사에는 공교롭게도 참여 가족으로는 우리만 참석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아는 듯 마치 주인공인 양 활발하게 좌석을 누비던 첫째 아이의 모습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주변 눈치를 보며 제지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는 모두가 따뜻한 축복의 시선으로 아이를 품어주었다. 아이는 문을 나서며 “내일 여기 또 오자!”고 할 만큼 사랑을 듬뿍 받고 왔다.

현대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되었다. 나는 세 번의 임신과 두 번의 출산을 겪으며, 임신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몸의 뿌리부터 회복된, 속까지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한의학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임으로 고민하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이 사업이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한학을 신뢰한다. 그 신뢰가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해 주었고, 오늘도 그 생명은 내 곁에서 웃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조심스레, 나의 어릴 적 꿈을 꺼내어 세 번째 생명을 소망하고 있다. 이 마음 아직 남편에게는… 쉿, 비밀이다.

한의학 난임사업이 확대되길 바라며..



[경기도] 이지혜 한의사

제가 한의학 난임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8년 안양시 한방난임사업단 위원으로서 결과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으면서였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경기도 난임부부한의약지원사업단 위원으로서 본격적인 한의학 치료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 여성 건강과 난임 치료에 관심이 많아 한의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각종 한의학 난임사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한의원에는 난임부부의 내원 빈도가 적진 않은 편인데, 이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예민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유지해야만 임신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매번 치료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양방의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에 편입되고, 최근 출산율의 하락으로 각 지자체의 금전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희 한의원에는 보조생식술을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실패한 뒤 내원하는 난임부부가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지원금의 확대 이후 환자 대다수가 보조생식술을 먼저 시도한 뒤 한의학 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학 난임사업을 시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사업 구조상 한의학 난임사업 참여 시에는 양방 보조생식술 연계가 제한되어, 환자들이 보조생식술을 우선 선택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한 환자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 환자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진단을 받고 1년 반 동안 배란유도제 투여를 통해 임신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였고, 2018년 저희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불규칙한 월경 치료와 더불어 3개월간 한약 복용 후 자연 임신에 성공해 건강하게 남아를 출산하였고, 2023년에는 경기도 난임부부한의약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둘째 임신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임신 과정에서도 한의학 난임사업에 참여하기 전 배란유도제를 통해 자연임신을 1년 넘게 시도 했지만 실패 후 내원한 경우였는데요. 경기도 한의학난임사업을 통해 한약과 침, 뜸요법을 병행한 끝에 90일 분량의 한약 복용 후 추적관찰 기간에 자연임신에 성공해 2024년 가을 둘째 여아를 출산하셨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학난임사업은 보조생식술 실패 후에도 자연임신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험관 시술을 5회 이상 반복할 경우, 임신가능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도 있어, 과도한 보조생식술보다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한의학 난임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의학 난임사업이 난임 환자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포도가 엄마아빠의 아기로 오게 된 이야기를 편지 형식으로 작성

[경기도] 정솔비 대상자



포도야 안녕?

오늘은 아기천사 포도가 아기별에서 엄마 아빠 품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엄마 아빠는 꽤 오래전부터 아기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지만 1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아기천사.

엄마 아빠는 의학의 힘을 빌리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갔단다.

그곳에서 여러 검사를 해본 결과 엄마와 아빠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으며 한 달마다 아기천사를 기다렸지. 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았던 아기천사. 결국 엄마는 인공수정까지 하게 되었어. 그때 엄마는 아기천사가 엄마 뱃속으로 쏙 들어올 줄 알았어. 하지만 두 차례 실패 후 엄마 아빠는 슬픔에 잠겨 있었단다. 결국 남은 건 시험관 시술. 엄마는 시험관 시술이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산부인과는 더 이상 가지 않았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 엄마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지 않았던 아기천사를 서서히 잊게 되었단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도 한의사회 난임 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어. 엄마 아빠는 ‘과연 한약으로 임신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사업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더라. 선착순 모집이었기에 신속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 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지.

문자를 받고 기뻐했지만 걱정도 되었단다. 왜냐하면 엄마는 한약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방문하게 된 OO한의원. 엄마는 처음으로 한의원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었지. 하지만 편안하고 차분한 한의사선생님 진료 덕분에 긴장이 풀렸단다. 그 후 엄마 아빠 진맥에 따른 맞춤 한약을 받고 그날부터 하루 세 번 열심히 한약을 먹었어. 한약은 정말 쓰고 맛이 없었어.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목표로 꾸준히 한 달을 먹은 결과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한 달을 꾸준히 먹고 다시 방문한 한의원에서 한 달분을 더 받았지.

두 번째 한약을 마시고 생활하던 중 엄마가 퇴근을 하고 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몸이 너무 피곤했어. 그때 마침 남은 임신 테스트기가 한 개 있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선명한 두 줄을 보게 되었단다. 엄마는 두 줄을 처음 봤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단다. 아기가 진짜 내 뱃속에 있나?, 아빠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하며 기쁨 반 설렘 반으로 아빠를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지.

2023년 9월 18일 포도가 처음 엄마 아빠에게 인사한 날, 엄마 아빠는 이날을 평생 기억할 거란다. 우리 아기 포도야, 엄마 아빠에게 너무 늦지 않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포도야.

엄마 아빠에게 너무 늦지 않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난임지원사업과 난임진료 10년의 이야기,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기억합니다



[경기도 화성특례시] 장남일 한의사

저는 화성시에서 OO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은 2016년부터, 화성시 사업은 2020년부터, 지원사업 첫해부터 진료하고 있습니다.

난임진료와 관련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랜 기간 임신을 기다린 부부가 새생명을 맞이했던 소식일 것입니다.
임신은 한 가족에게 가장 큰 역사의 시작이고,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이자 감동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경기도 난임사업, 2020년부터 6년간 화성시 난임사업에 참여하면서 난임부부의 임신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인상 깊었던 일이고 난임사업 성과대회를 맞이하면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니 그 감동이 먼저 떠오릅니다.

2019년 화성시 난임부부지원사업(이하 화성시 난임사업)의 시작을 위해 당시 분회장님이었던 신재홍 원장님과 화성시 시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여러 차례 보건소회의를 거쳤던 일도 떠오릅니다. 결국 2019년 6월에 입법발의가 되고, 8월에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분회 난임사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화성시 한의사회에 난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저는 난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9년부터 현재까지 분회 난임사업의 진행과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화성시 난임사업은 사업 초기에 시예산 3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난임부부 10쌍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15쌍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지원되는 예산이 5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임신성공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20%대 중반(25%, 26.67%)를 보고하였습니다. 매년 사업참여자수는 100%를 초과하여 지원하였고, 난임위원회에서 선정회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참여한의원에 배정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연도의 만족도 설문에서 매우만족과 만족에 체크한 설문이 80%이상이었고, 2024년에는 10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시 난임사업의 장점은 정액검사상 정상인 남성에게 한약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점입니다. 당시 이런 사업 모델은 거의 최초였으며, 사업 시작 당시 유관기관에 “여성 난임의 많은 경우가 원인불명으로 인한 난임이므로 마찬가지로 정액검사상 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

으로 나타난 남성에게 한약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이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현재까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시 난임사업은 위탁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홍보, 참여기관 교육, 환자 배정, 설문조사, 통계와 보고서작성을 난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6인의 관내 원장님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거의 매일 같이 자료를 주고받으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로 난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난임위원회 원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료 정리와 행정구역 특성상 권역별 예산 집행 문제 등 행정적인 복잡함이 있었지만, 위원회와 보건소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잘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난임위원회와 보건소 담당자분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 첫 난임사업 참여 당시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부모의 간절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료에도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저희 딸 또래로 자라고 있을 난임부부의 아이들을 떠올리며, 이 일의 의미를 다시금 느낍니다.

이런 행복을 많은 부부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임신준비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시술부터 생각하는 현시대에 좀 더 확대되고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기초 건강개선, 생식 기능 향상, 배란과 월경의 균형 회복 등 자연임신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한의학이 가진 장점을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저출산 시대에 한의약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임부부를 처음 진료할 때 저는 늘 자세를 다시 가다듬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의약 치료가 개인과 가족의 치유로 이어지고, 한의학의 가능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런 난임치료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우수한 한의학과 난임진료에서의 가치를 모두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난임부부 한방지원 사업과 화성시한의사회의 역할

[경기도 화성특례시] 장재호 한의사

화성시한의사회가 그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한 내용을 기록하여, 타 한의사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화성시 난임부부 한방지원 사업의 시작은 2011년 05월 입니다.

당시 화성시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양한방병행치료를 제안(기질적 문제확인, 난임검사 등)하였으나, 의사협회의 의견이 없어 한의사회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38명으로, 선정된 20명은 지금과는 달리, 지정받은 관내 한의원에서 자연 임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시술 및 한약 처방 등 한방 진료를 무료로 시술받는 사업의 형태였습니다. 진료비(한약 18만원, 3회 가능 포함)는 화성시와 한의사협회가 50%씩 부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타깝게도 화성시보건소 해당 예산삭감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진행되며, 분회 사업 참여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양방진료 시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한방진료가 도움이 되었던 서로의 진료경험을 공유하며 화성시에서도 난임부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출산율 최저라는 사회문제에 의료인으로서, 한의사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 난임부부 진료나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양방에서 진료를 받고,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불명’이며 한방치료까지 하려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인데, 현실은 개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성시 한의사회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한의사회 난임위원회(위원장-회장)를 구성하였고, 타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고 타지역한의사회와 소통하며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화성시보건소에 <화성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도 화성시의 당시 상황 즉, 화성시는 경기도 내 인구증가율이 제일 많다고 하나, 유입인구비율 증가에 비해 출생율은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사실과 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 3월 12일 <시민 건강을 위한 교육복지위원회-한의사회 간담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 보건소관계자, 화성시 한의사회가 모여 난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며, 사업 진행 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 때처럼, 사업이 도중에 중단되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으려면, 조례와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알게 되어 <화성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2020년에 시작할 수 있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례 제정과 사업예산 확보, 보건소에서는 사업 예산 배정, 양방중복지원 확인, 거주지 확인, 사전 사후 혈액검사 지원과 타 지자체 사업을 분석하여 화성시에 맞게 그리고 난임부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의사회 난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사업 형식과 내용을 정리하며 사업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사업이 2019년 부부 동시 지원이 되면서 임신성공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화성시 사업도 부부 지원으로, 경기도 사업에서 더 나아가 남성요인이 없어도 지원하는 것이 임신성공율을 높일수 있다는 진료 경험과 논문을 토대로, 시의회와 담당자분들을 설득하여 부부 동시 지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사업 준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 1월부터 심각해져 사업이 무산될 위기도 있었지만, 시의회와 보건소를 설득하여, 2020년 7월에 난임부부 10쌍의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은 지역이 넓어 서부/동부/동탄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사회도 난임위원회 구성을 각 보건소 관할에 맞추어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임위원회 위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 난임부부가 사업 신청을 하면, 직접사업 안내와 설명을 하고, 인근 참여한 의원을 5배수 정도로 안내하고 부부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난임부부 접수부터 한의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실제진료비(10쌍 - 3,600만원)는 화성시보건소에서 각 한의원으로 지급하며, 화성시한의사회는 사업진행비용(약 800만원)을 담당하였습니다. 23년도부터는 지원자가 많아져 사업을 15쌍 지원으로 확대하여 시행(사업비 6,300만원, 난임부부 15쌍 5,400만원 - 화성시, 사업진행비 900만원 - 한의사회)하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 후 23년, 24년 임신율도 증가 상태입니다. 난임사업 예산이 각 보건소에 배당되어, 각 지역에서 지원자가 고르게 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타지역 보건소에 사업을 신청할 수있게 협조하여 예산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력하고, 24년부터는 부부 대상 교육으로 화성시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강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5년 7월 현재까지 <화성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결과보고서에 난임부부의 임신, 임신유지, 출산을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으며, 대상자들이 한방난임사업을 신청하면서 양방시술 불가 기간 때문에 사업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실질적인 임신율 향상을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 병행 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한의사회는 난임 지원사업이 임신은 성공했지만, 자궁이 약해 유산이 되는 경우, 임신질환으로 건강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산후풍이 심해 산모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방향도 임신 성공뿐만 아니라 임신 관리,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진료가 포함되도록 고민하며 준비중에 있습니다. 11년도에는 평회원으로서, 18년도부터는 총무이사/부회장으로, 21년부터는 회장과 난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화성시 난임사업의 진행에 한의사의 역할과 노력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회복이었고, 끝은 탄생이었다 - 자연임신과 출산을 이끈 한의약 난임 치료의 여정 -



[경기도 화성특례시] 한경훈 한의사

두 번의 유산을 경험한 한 여성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산부인과에서는 습관성 유산 진단과 함께 보조생식술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전반적인 건강개선을 통해 자연 임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렇게 화성시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2024년)에 참여하였고, 그 선택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인공수정으로 두 차례 임신에 성공했지만 모두 조기 유산을 겪었다. 반복된 시술과 부작용으로 인해 몸은 지쳐 있었고, 배란유도제 복용 시마다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자연스레 그녀는 시술을 중단하고, 한의치료를 중심으로 건강 회복과 체질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부담으로 3개월간 한약과 침, 뜸, 약침 치료를 병행하였고, 차갑던 배와 손발, 소화장애, 월경통 등 전반적인 증상들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사업 참여 기간 3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가던 중 임신이 확인되었다. 난임사업 지원 한약 총 6회 가운데 5차 처방 복용 시점이었다. 이후 마지막 한 차례는 본 사업에서 제공 가능 한 안태 처방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자비로 1개월간 안태 처방을 추가 복용해 임신 안정기를 지나 38주에 건강한 출산을 하였다.

이 사례는 화성시 난임사업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반복 유산과 시술 실패라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회복의 여정이, 복합적인 신체 증상이 개선되는 과정을 거쳐 자연임신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화성시 사업 외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역에서 가장 많은 임신 성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임상 경험은 다양한 난임 부부들이 한의약 치료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한약을 비롯해 침, 뜸, 약침 등의 치료를 통해 오랫동안 고통 받던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거쳐 임신하는 사례는 물론 종종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수년간 임신이 되지 않아 보조생식술까지 고려하던 부부가, 초진 상담을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인지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후 임신하는 사례다. 이처럼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방법을 몰랐거나 너무 빠르게 시술로 진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 난임 진료의 시작점은 단지 시술 권유가 아닌,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조언과 심리적 지지에서 출발해야 하고, 치료 역시 임신을 위한 건강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한의학은 원인불명의 난임, 반복유산, 배란장애, 남성요인 등 다양한 난임 요인에서 건강 회복과 생식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보조생식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시술에 앞서 한의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시술과 한의치료의 병행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협진 체계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접근을 위해 원내에서 혈액검사, 초음파, 심박변이도(HRV) 분석 등 현대 의료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치료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 2024년도 사례 외에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배란장애 진단을 받고 6회의 배란유도 실패를 겪은 32세 여성은 배란기능을 회복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약치료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이후 2023년도 화성시 난임사업에 참여하여 2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이처럼 한의학은 다양한 단계의 난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적 자산이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은 단순히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부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부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신 이후 안태처방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보조생식술 병행 시 구조적 유연성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의학은 지금 이순간에도 건강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회복과 가능성의 의미로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한의학이 더 많은 지자체를 통해,
국가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제시 한방난임치료사업 운영 경험 공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이가람 주무관

김제시는 결혼·출산을 미루는 젊은 층 증가와 더불어 난임부부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김제시는 도시권에 비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제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의약을 통한 체질 개선과 자연임신 준비를 목표로 합니다. 대상자들은 관내 협약 한의원 중 원하는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한약 투약과 침·뜸 등 개인에게 맞는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된 양방 난임시술 실패로 심리적·신체적 피로를 겪고 있던 여성들에게 정서 안정, 체질 개선, 월경주기 정상화 등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임신 성공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치료 종료 후 양방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가 1명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한방 치료가 체질 개선과 자궁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참여 대상자들로부터 “몸이 따뜻해져서 좋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참여자 모집이었습니다. 홍보 포스터 제작, 읍면동 홍보,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게재, SNS와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지만, 대상자 발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한방난임 치료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담감이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사업 참여자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난임치료 사례를 꾸준히 발굴·홍보 하고, 자연임신뿐만 아니라 양방시술 전 체질 개선과 임신 전 건강관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을 위한 대안적 치료이자,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농촌지역에서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제시 또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점차 개선해가며,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만든 기적 -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만난 새로운 삶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이티타오 대상자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평범한 여성입니다. 낯선 땅에서 삶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적응이 어려웠고,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결혼 후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 차례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실망과 걱정이 겹쳐가면서 마음은 점점 지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권유로 OO한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원장님은 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주셨고, 저체중과 저체온으로 인해 손발이 항상 차갑고, 생리량이 적으며 주기도 불규칙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는 임신이 어려운 몸의 상태이며, 체중과 체온이 회복되고 생리 주기가 규칙적으로 돼야 자연 임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몸의 상태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치료였지만, 원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몸이 많이 차네요.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따뜻하게 바꿔봅시다. 아기들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정성스럽게 조제된 한약을 복용하고, 주 2~3회 침·약침·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체온 회복을 위한 맞춤 치료와 자궁 혈류 개선, 식이요법,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상담과 격려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차가웠던 손발은 따뜻해지고, 불규칙하던 생리는 일정해졌으며, 무기력했던 일상에도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마음도 밝아졌고, 마침내 자연스러운 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건강한 첫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기다리며 다시 한의난임치료를 받았고, 또 한 번의 소중한 생명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딸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며 한국에서 ‘진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청담한의원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회복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많은 분께 저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처럼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한약과 함께한 희망의 여정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엄재연 한의사



000님은 보건소에 내걸린 한의난임사업 현수막을 보고 본 사업에 지원하셨습니다. 접수된 신청서를 보니, 난임 기간이 무려 5년이었고, 양방에서 무배란성 난임을 진단받았으며 인공수정 시술도 한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보며 ‘참 쉽지 않은 케이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원 당시 000님은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이 너무 얇아서 임신 및 착상 유지가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큰 실망을 안고 오셨습니다. 키 163cm에 체중 45kg의 마른 체형이었고, 생리불순에 생리통과 배란통이 있으며, 출혈기간은 6~7일이었지만 하루 패드 사용량이 2~3개로 출혈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기초체온은 36°C를 넘지 않았고, 손발이 차며 늘 춥고, 소화도 안 돼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소기만 돌려도 피곤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문진, 복진, 맥진, 망진과 한의난임 설문지를 통해 000님의 체질은 선천적 기혈허약, 간울 및 어혈로 인한 난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 치료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두 끼 이상 섭취’로, 자궁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생리량이 증가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환자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리와 생리량 증가’로 이는 자궁과 난소 기능 회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치료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체온 상승과 전반적인 체력 및 면역력 증진’으로, 기초체온은 호르몬 반응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기에 이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치료는 환자 상태에 맞춰 한약 처방을 기본으로 하였고, 내원 시 침, 뜸, 약침 등의 한방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무기력감과 우울감 해소 등 정서적 지지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치료 시작 2주 후, 환자는 복부 압통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하루 두 끼를 섭취해도 소화가 잘되어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첫 생리에서는 패드 사용량이 3~4개로 늘었고, 생리통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시작 후 2개월이 지나자, 기초체온이 36°C를 넘기 시작했고, 식사량도 하루 2~3끼까지 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손발도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생리량 또한 패드 4~6개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회복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초체온이 3주 이상 36.8~36.9℃를 유지하자 조심스럽게 임신테스트기를 권유했고, 다음날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로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혹시 몰라 일주일간 기초체온을 더 확인한 후 재검을 권했는데, 역시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부인과에 임신확인서를 받으러 간 000님이 “테스트가 잘못된 걸 거다.”,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다.”라는 말을 듣고 진료조차 못 받은 채 울며 전화해 오셨습니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기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환자를 달래며 착상 유지를 위한 한약과 약침치료를 지속했고, 일주일 후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권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저 역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고, 그날 오후, 임신확인서를 들고 내원하신 000님과 우리는 서로 겨안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후 입덧 증상은 한약과 침 치료로 완화되었고, 결국 건강한 남아를 출산하셨습니다. 출산 후 어혈 제거를 위한 한약을 ‘출산 축하 선물’로 드리며, 마치 친동생이 아이를 낳은 듯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3년 후, 둘째가 자연임신 되지 않아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육아로 지친 상태였지만, 체질에 맞는 치료를 다시 진행했고, 또 한 번 건강한 출산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두 아이 모두 아들이라 “둘째는 딸이길 바랐는데...”라는 귀여운 고백을 덧붙이셨습니다.

난임치료 4개월만에 자연임신에 성공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리와 배란이 정상이어도, 임신 가능 한 시기는 한 달에 1~5일뿐입니다. 인위적인 호르몬 조절이 아닌, 전신건강을 회복시켜 자율적인 생리·배란을 유도하는 방식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치료로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면 비록 지원 기간 내 임신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6~10개월 안에 자연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된 양방시술 실패로 심신이 지친 분들일수록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첫해에 임신 성공을 도운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이 가능했던 건, 지속적인 공공의료 지원과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한의사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변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의 가능성

[전라남도] 최은지 주무관



전라남도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은 도 단위에서 기획·추진되고 있는 공공 한의약 사업으로, 목포시는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대상 모집, 치료 연계, 사후 관리 등 실질적인 실행 역할을 맡아왔다. 난임과 저출산이라는 인구 구조 위기 속에서, 본 사업은 침습적 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한의약을 통해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만나고 사업을 운영하며, 단순한 약제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의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

치료는 전라남도 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거주지와 편의성을 고려해 한의원을 배정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정액 검사 기준을 충족한 남성도 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부부 단위 치료 체계를 실현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단독 신청보다 동반 신청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은 한방 난임 치료가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부부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잘 보여주며, 신체적 효과와 심리적 지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상자들의 치료 일정 조율, 오리엔테이션 강화, 중도 탈락자 관리 체계 정비 등 세부적인 행정 조율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현장 맞춤형 사업 수행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단순한 임신 성공률이 아니라, 난임 부부가 한의약이라는 공공자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희망을 회복한 점이었다. “남편과 함께 참여해 한약을 복용했는데, 3개월 차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몸에 기운이 나는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확신도 생기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라는 참여자의 소감은 사업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실무자로서의 책임감을 매 순간 느꼈다. 임신과 난임은 개인에게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이기에, 지원 과정 중 예기치 않은 요구나 반복되는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후 임신에 성공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면 담당자로서 깊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임신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치료 후 몸이 회복되어 양방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접수되는 것을 보며, 본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섬세함이 요구되는 민감한 영역이지만, 그만큼 대상자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문제이기에,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정서적 지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가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본 사업이 공공 한의약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현장 사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모델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소중한 생명의 씨앗, 한방에서 찾은 희망

[전라남도] 오정아 대상자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선택

2022년 결혼 이후 수년간, 저희 부부의 일상은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마음은 조금씩 좁아지고, 주변의 시선과 말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장남의 아내로서 책임감, 사회적 기대 속에 마음의 짐은 커졌고, 반복되는 시도와 실패는 삶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병원 치료와 시술에도 변화가 없던 중, 전라남도 해남군 보건소의 ‘난임 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방치료는 익숙하지 않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망설였지만,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원한다는 설명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발걸음, 따뜻한 위로의 시작 - 체질 개선부터 마음의 회복까지!

처음 한의원 문을 열었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라고, 편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진맥 결과 ‘냉증이 심하고 기혈 순환이 잘되지 않는 체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몸 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약 복용이 시작되었고, 식습관 조절, 생활 리듬 개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생리통이 완화되고 피부가 맑아졌으며, 만성피로가 줄어 아침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마음에도 큰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이전에는 생리 전후로 불안하고 초조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끊기지 않는 지원 - 지역사회 한의원과 보건소 협약으로 치료 시작

해남군의 난임 한방 지원사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꾸준한 치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 총 4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관리
- 지역 한의원과 보건소의 협약을 통한 긴밀한 치료 지원
- 정기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중단 없이 꾸준히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과 보건소가 긴밀히 연계하여 관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중에도 정기적인 진료 일정이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안내해 주신 보건소 직원 분들과, 매 상담마다 정성껏 몸 상태를 살펴주시던 한의사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 같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치료를 ‘스스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응원해 주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 덕분에, 무엇보다 치료에 대한 신뢰와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4개월간의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정말 감사하게도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공주님, 이제 6개월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고, 지금은 사랑스러운 6개월 된 딸을 품에 안고 매일을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는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고, 저희 부부의 삶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이 사업이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사회적 치유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정책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와 희망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입니다.”

OO의 난임 한방 지원사업은

- ✓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 ✓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 ✓ 전문적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따뜻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중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신 OO보건소와
지역 한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한 가정의 웃음과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2024년 한의원임사업 기고집

등 록 일 2025년 11월
발 행 일 2025년 11월
발 행 처 한국한의학진흥원
발 행 인 송수진(한국한의학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기 획 한국한의학진흥원 정책본부 의료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 오송빌딩 4층
Tel 02-3393-4540 / www.nikom.or.kr
디 자 인 (주)위드원커뮤니케이션 02-2088-8008